

최종결과보고서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

Fellowship Program for
Next Generation Telecom Leaders

2004. 2.

사업수행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 보 통 신 부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

2004. 2.

사업수행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 보 통 신 부

제 출 문

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2월

사업수행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업책임자 : 정 인 익

서 보 현

김 철 완

참여연구원 : 김 태 은

이 석 우

홍 승 연

요 약 문

1. 제 목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동 사업은 주요 전략국가의 차세대 정책결정자 및 오피니언 리더가 될 인사들에 대한 석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IT산업을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확대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기반 구축을 통해 향후 해당국 진출에 유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동 사업을 통한 개도국의 IT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정보통신 외교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향후 우리나라 IT 업체들의 개발도상국 진출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및 결정들에 있어서 기술 관료들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바, 장기적인 맥락에서 개도국의 젊은 관료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교육기회 제공함으로써 선도적인 투자를 한다고 할 수 있다.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동 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주요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향후에 정보통신 지도자,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선정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인사가 초청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의, 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범 정부차원의 공정한 인선절차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단계는 선정된 인사를 초청하여 학위를 마치고 귀국할 때 까지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목적인 학위취득을 달성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장관명의로 공식 초청장과 과정 안내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송부하며, 동시에 한국어 연수기관 선정, 참가자들의 비자 취득 등 입국관련 제반 사항 등을 지원한다. 참가자들은 입국 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환영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2년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전 교육기간에 걸쳐 전담직원이 참가자들과의 수시 접촉을 통해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참가자들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국내 생활 정착 지원과 학업상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해소하도록 한다

어학연수과정 동안은 한국 내 정책의 지원과 전공과정 진학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전공과정 전형 시 필요한 관련 제반정보를 수집, 참가자들의 전공 선택 및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전공과정 진학 후에도 참가자, 담당 지도교수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시접촉을 통해 참가자들의 국내 생활과 학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IT산업의 홍보와 유대관계 강화 등을 위

해 산업시찰 등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과정 진행을 지원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기반을 강화하고, 유대관계를 지속시켜 국내업체들의 해당국 진출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상호 연락체계의 형성, 데이터베이스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사업수행결과

가. 제2기 참가자

제2기 참가자 9인(중국 6인, 몽골 3인)은 2002년에 진학한 학교별로 각각 서울대(2인), 경희대(4인), ICU(3인)에서 전공과정을 시작하여 2003년에는 제2학기, 제3학기에 접어들며 과정 심화단계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업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하며 관련 학회지 등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는 등 효과적인 전공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단, ICU에 진학한 몽골 참가자의 경우 학교 측의 독특한 학사관리로 인해 학업진행이 어려움이 있어 경희대로 편입하여 전공과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제3기 참가자

당초 선정위원회에서 총 5인을 선정하였으나 1인이 개인적인 사유(신병)로 불참함에 따라 제3기 참가자는 중국(1인), 베트남(2인), 미얀마(1인)에서 총 4인이 참가하였다. 제3기 참가자들에게는 정보통신부 장관명의로의 공식 초청장, 과정 안내자료 및 입국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등 초청작업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각종 행정상의 지원, 각국 주재 대사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입국을 지원하였다.

2003년 3월 입국하여 2003년 8월까지 약 6개월간 한국어 연수과정을 진행하였고, 국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다. 어학연수과정을 진행하면서 전공과정 지원을 함께 실시하여 각자 본인의 희망 전공, 학교 등을 선택, 대학원 진학 전형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서울대(1인), 경희대(2인)로 진학하게 되었다. 현재 2003년 9월부터 각자 소속 학교에서 전공과정의 제1학기를 완료한 상태이다.

5. 활용분야 및 실적

동 사업은 향후 정보통신 지도자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인사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취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기반을 구축하여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개도국 정보통신인력 개발 지원을 통해 해당국의 정보화발전을 도와 정보통신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KISDI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과 연계,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 사업 효과

동 사업은 장기적인 맥락에서 통해 국제 정보통신 협력증진과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기반 구축을 통한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 지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간 차원에서 해당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도움을 줌

으로서 양국간의 협력이 공고해지고, 다자간 차원에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발전 지원으로 정보통신 선진국으로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우리나라 위상 강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선진국으로서 많은 개도국들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많은 협력관계를 원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인력개발협력에 대한 수요도 많다. 우리나라로서는 주요 개도국 전략국가들의 수요를 충족하며,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양자간, 혹은 다자간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제기구 등에서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노력이 국제기구, 회의 등에 소개되면서 정보통신분야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IT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를 통해 국내 업체들의 세계 시장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매우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여 전략국가 진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 과정의 참가자들이 향후 각국에서 정책결정자, 테크노크라트,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잠재적인 인사들로 이러한 인사들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에 동 과정과 같이 국내의 우수한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개발하였거나 경쟁력있는 기술을 배워 향후 귀국 후 국가차원의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거나 후학을 양성하게 되면 우리의 앞선 기술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대학의 지도교수, 연구 동료들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양국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과 연계가 강화될 경우 이러한 확산은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이를 통한 국내기술의 역내 및 세계 표준으로의 채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Summary

1. Title

Fellowship Program for Next Generation Telecom Leaders

2. Objective

The main objectives of the program are to establish IT Human Network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o promote Korea's IT technology and industry through providing the policy makers and opinion leader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 opportunity to study in Korea. In the long run, it is expected that Korean IT companies will benefit from the IT Human network in the respective country, when they plan to expand the business in that country.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technocrat and professional officials on the IT policy making and other related decision, this project can be regarded as the leading investment for the future

3. Scope and Content

In order to achieve aforementioned objectives, the strategic country and the appropriate participants who will be the next leader in the respective country should be selected first. In this context, KISDI should consult

the government and the embassies to implement a fair selection process, in order to select optimal policy makers and leader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Second, KISDI will select participants according to due procedure, and provide full support in order that they can proceed to the Master degree and get in dep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Korea.

The formal letter of invitation by th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 brochure containing information of the program and other related materials will be sent to admitted participants. In addition, institution providing Korean language courses and overall entry process including the visa process will be supported by KISDI. The program will begin with an orientation including welcoming speeches by the MIC representative and the APII CC Director, introduction of the program as well as other information about living in Korea.

As the participants take the language course, many discussion sessions and special program will be held to support the participants in adapting to Korea including the studies at school. In addition, KISDI will assist the participants in selecting their major by providing information and the potential outcome.

Once the participants engage in their master degree course, KISDI will assist the participants by holding discussion session with the advisors to facilitate them communicate with the school.

Furthermore, KISDI will strengthen the bond with former participants

by forming contact networks and by effectively managing the database. These efforts will assist Korea to establish strong network with the respective countries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Korean companies trying to expand their market to these countries.

4. Accomplishment

1) The First group of participants.

6 persons(1 pers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2 persons in Korea University and 3 persons in Kyunghee University) from China of the 1st group of participants who was invited in February 2000 completed the education for a master's degree in accordance with the schedule. While all classes are provided in Korean, the students who has already stayed for two years in Korea does not have any problem regarding language so far. They keep obtaining excellent result by professor's supporting, fellow's help and making own's efforts. Furthermore, the studen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he 1st group of participants is awarded a scholarship.

In August 2002, 5 persons of the 1st group of participants have been conferred master's degree from Korea University (2 persons) and Kyunghee University (3 persons). Moreover, in February 2003, another participant of the 1st group of participants have been conferred master's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sequently, the 1st group of participants all could accomplish the Fellowship Program successfully by accomplishing master's degree.

2) The Second group of participants

In December 2001, 9 persons (6 persons from China and 3 persons from Mongolia) of the 2nd of group participants arrived in Korea and started Korea Language Program from January to August in 2002. By accomplishing this program, they could elevate the Korean proficiency.

The 2nd group of participants all applied for admission a graduated school in accordance with their own's inclination and went on to Seoul National University(2 persons), Kyunghee University(4 persons) and ICU (3 persons). Currently, they completed first semester started from September 2002.

3) The Third Group of Participants

The number of the Third Group of Participants are 5 in total and they are from China(2), Vietnam(2), and Myanmar(1).

A selection committee, consisting of some relating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c specialists, has chosen the final participants from the recommended above, and proceeded with the inviting procedures: sending official invitations under the name of the Minis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brochures introducing the program. Furthermore, by cooperating with Immigration Bureau in Ministry of Justice and many embassies abroad, and getting various supports from the administration, the committee enabled the participants' easy entries into the country.

5. Application field and Accomplishment

By providing leaders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field and opinion leaders with education for a master's degree, Fellowship Program for Next Generation Telecom Leaders aims to allow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ir markets by using friendly relation and to promote the Korean image as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by supporting development for information and technology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providing advanced human resources.

Currently,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project of KISDI APII Cooperation center which aims to construct an oversea IT human network, this program will be used as a tool to build and manage the human resource database so as to provide a favorable condition for domestic companies entering the oversea markets.

6. Project Effect

This project is expected to enhance international IT cooperation, and build a basis of Korea-friendly human resources, which can support Korean companies to enter into foreign markets. It can also improve the recognition of Korea as an IT leader with its active efforts and initiatives, which include support for I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As an IT leading country, Korea attracts many developing countries who want close cooperation for their national development. Promoting I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Korea will be able to meet the need of strategically important countries, and expect mutual benefits from it.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n IT leader among international communities with its substantial efforts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which became a major issue a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nferences. The diplomatic capacity of Korea has been also increasing, as it gets calls for IT cooperation.

The image of Korea as an IT leader will help Korean companies to have more favorable image at the world market, positively supporting the penetration of the foreign markets including strategically important countries. In particular, the human network, which consists of the potential policy makers, technocrats, and opinion leaders from this project, will be able to effectively support Korean companies to penetrate foreign market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educated with the technologies that Korea developed or has comparative advantages, can conduct a joint research project with Korea at the national level or to educate young students of their own countries, further spreading Korea's advanced technologies throughout the world. Their close relationship with professors and colleagues at the Korean universities will also enable Korean technologies to propagate, leading them to become regional and worldwide standards.

Table of Contents

I. INTRODUCTION

1. Background
2. Overview
 - 1) The Purpose of the Program
 - 2) The Details of the Initiative

II. Strategy

1. Procession of the Project
 - 1) Establishing a Master Plan
 - 2) Invitation of the 3rd group
 - 3) Progress of the course
 - 4) ex post facto Management
2. Implementing Framework of the Project
 - 1) Work Assignment
 - 2) Structure

III. Achievement of the Project

1. Progress of the 2nd and the 3rd group
 - 1) Progress of Promotion (The 2nd Group)
 - 2) Progress of Promotion (The 3rd Group)
 - 3) Progress of the Special Program
 - 4) Organize and Operation of the Enquire Committee

IV. Evaluation and Effect of the Project

1. Evaluating the Project
 - 1) Overall Evaluation
 - 2) Detail evaluation and Improvements
2. Effect of the Project
 - 1) Raising of IT diplomatic ability and Securing Korea's competitive edge over other counterparts
 - 2) Diffusion of the domestic strategic IT Technologies
 - 3) Providing korean companies with a springboard toward overseas markets.

V. Henceforth Implementing Plan

APPENDIX

<Annex 1> General Managerial Guide

<Annex 2> General Information (English)

<Annex 3> The list of Participants (the 1st - 3rd Group)

<Annex 4> The Photographs about Major Activities

목 차

제 1 장	서론	21
제 1 절	사업추진 배경	21
제 2 절	사업의 개요	24
1. 사업의 목적	24
2. 사업의 내용	25
제 2 장	사업의 추진방법	28
제 1 절	추진방법	28
1. 기본계획 수립	28
2. 제3기 참가자 초청	30
3. 교육과정 진행	31
4. 참가자 관리 및 지원	33
제 2 절	사업의 추진체계	34
1. 업무분장	34
2. 사업추진 체계	35

제 3 장	추진 실적	36
제 1 절	제2기 및 제3기 과정진행	36
1.	제2기 참가자 과정	36
2.	제3기 참가자 과정	37
3.	특별프로그램 진행	41
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0
제 4 장	사업 평가 및 효과	65
제 1 절	사업 평가	65
1.	총괄	65
2.	세부평가 및 개선사항	67
제 2 절	사업 효과	70
1.	국제적 위상 제고	70
2.	국내 IT산업 홍보 및 기술의 확산	71
3.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71
제 5 장	향후 추진계획	73

첨 부 목 차

<첨부 1>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 운영지침

<첨부 2> 교육생 안내자료 (영문)

<첨부 3> 참가자 명단 (제1기~제3기)

<첨부 4> 주요 활동관련 사진

제 1 장 서론

제 1 절 사업추진 배경

1980년대의 집중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우리나라의 IT산업은 IMF 경제위기 겪은 1998년 이후에도 연평균 19.1%의 높은 성장을 실현하여, IMF의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IT산업은 2003년 말 현재 전체 산업 수출의 29.5%, 무역흑자의 141.2%를 점하는 등 국민경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IT의 역할은 지금까지 보다 더욱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IT 산업의 초기 발전과정에서 정부는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였다. 현재도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신성장 동력 가운데 8개 부문을 IT산업이 차지하는 등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정부는 IT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와 지원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WTO 기본통신 협상의 타결과 맞물려, 통신시장의 자유화, 민영화, 개방화가 진전되고, 우리나라의 OECD가입으로 따른 선진국차원의 규제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함으로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국내 IT산업 발전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경제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BRICs 국가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이 막대한 성장잠재력의 발현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그간의 침체를 벗어나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고 실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까지 IT 수출 3500억불 무역흑자 1100억불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50대 세계 IT 일등 상품 발굴 및 육성, IT장관회담개

최 등 정부차원의 통신협력을 통한 환경조성,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IT지원센터운영 및 IT 산업 수출 금융 및 보험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해외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주로 해외 IT인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통신산업 및 기술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개별기업의 해외진출 추진에 도움을 받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국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파생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통신부는 1회성 홍보행사로 진행되어오던 해외인력초청사업을 1998년부터 장기적인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맥락에서 사업을 개발, 지원하였으며 그 규모 및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단기 인력초청사업의 진행과 함께 장기적인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및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기술을 습득한 전문 테크노크라트들이 주요 전략국가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교육과정을 1999년부터 시작하였다. 장기교육과정은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차세대 리더가 될 것으로 간주되는 인사를 해당국가로부터 추천받아 국내에서 석사 학위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학·연·산·관계와 유대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해당국가 내에서의 한국관련 오피년 리더가 되고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동 사업은 최초 시장규모나 잠재력 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내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중국 내 IT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시장기회를 선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CDMA진출 등 국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부차원 협력을 통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중 정상회담 및 한·중 통신장관회담 등 고위급회의가 추진되었다. 동 회의들에서 양국 간 정보통신협력기반 구축 및 첨단 통신분야 공동연구개발 등의 맥락에서 추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이를 바탕으로 중국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중국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차세대 중국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은 5년간 3기에 걸쳐 교육생을 초청하여 석사과정을 진행토록 하였으나 장기인력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요가 증대하고,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기는 중국 연수생만으로 진행하였으나 2, 3기는 몽골, 베트남, 미얀마의 교육생들일 참여하게 되었으며 과정명도 “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동 사업은 외형적으로는 정보통신 전문인력개발에 대해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 해당국가의 발전을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형태를 갖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관련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국의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기회 등을 창출하여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여 궁극적으로 범세계적인 개도국 정보격차해소에의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이익보다 실익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의 IT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정부들은 현재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IT부문 투자 및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들 국가의 잠재력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성과를 훨씬 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정보통신 기술 표준, 기종 선택 IT와 관련된 향후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전문기술 교육을 받은 기술 테크노크라트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교육의 성과는 매우 장기적인 맥락에서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제 2 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동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주요 전략국가들과의 정보통신부문의 협력기반 강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 외교의 역량을 증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정보통신부문 인력개발훈련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바, 양국 간 통신협력차원에서 전략국가의 잠재력이 큰 연수생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이 공고해 질 것이다.

둘째, 연수생들이 국내 석사과정에서 우리나라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석사과정을 통해 구축된 연구네트워크를 통해 첨단통신부문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주요국가에의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주요전략국가의 정보통신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소속 인력 및 해당업계 인력 등 향후 정보통신부문의 정책결정자 및 오피니언 리더가 될 참가자들을 통하여 CDMA, 차세대 이동통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국내 정보통신부문의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국가와의 첨단통신분야 공동연구개발을 통하여 해당국시장 개척뿐 아니라 해외시장의 공동진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참가자들은 정부부처, 연구소 등 주요 공공기관의 인사들이므로,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짐으로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될 뿐 아니라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국가, 기업,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제고는 정보통신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타 한국제품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초청프로그램을 통해 구축된 인적유대는 향후 중요한 정보교류의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의 내용

가. 초청 대상

동 연수사업은 향후 정보통신부문의 정책결정자 및 오피니언 리더가 될 주요 인사를 선정, 초청하여 석사학위과정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인사를 선정, 초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등 개도국의 경우 정보통신분야 기술표준, 기종선택 등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전문 기술교육을 받은 기술 고위관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바, 관련분야의 인적교류와 전문 기술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대상국 정보통신 관련 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인사를 선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에 기반하여 정부간 채널을 통해 초청자가 추천되면, 국내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초청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나. 재정지원

참가자들의 국내 체류비용, 최초 및 최종 입출국 시 항공권, 학비 등 국내에서 학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하고 있다. 각각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 왕복항공료: 최초 입국시와 최종귀국시 한국 내 국제공항과 장학생 본국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간의 보통선 항공권을 제공
- 생활비: 입국 후 매월 800,000원이 지급됨. 생활비에는 숙소, 식비, 일비 등 참가자가 한국에 체재하기 위한 모든 경비를 포괄함
- 정착지원금: 최초 입국시 1회에 한하여 700,000원이 제공됨
- 연구비: 교재비, 학교시설이용료 및 학생회비 등 학위과정과 관련한 수익자 부담경비 충당을 위하여 학위과정 진학 후 학기별로 600,000원을 지급 (연구비는 전공과정 입학 후부터 지급)
- 의료비: 과정기간 중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해 전담기관인 KISDI에서 한국 내 보험회사에 가입해주는 보험의 수혜범위 내에서 지급
- 숙소: 전담기관이 기숙사를 포함한 숙소 제공을 알선해주고 있으며 숙소경비는 지급되는 생활비에서 본인이 부담
- 학비: 전담기관이 어학과정 수업료 및 전공학교에서 학기초에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을 해당학교에 납입

다. 사업 내용

동 사업의 내용은 크게 1) 어학연수과정, 2) 석사학위과정, 3) 인적교류협력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어학연수과정

어학연수과정은 국내 생활 정착 및 향후 전공과정 수업 진행을 위해 만드

시 필요한 과정으로 입국 후 전공과정 진학 전 약 반년간 진행하며, 전공과정 진학 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제1학기에 한해 전공과정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공이행과 관련하여 영어 및 전공용어 등만으로는 수업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간주되며, 한국어 구사력과 한국에 대한 친밀도, 이해도가 비례한다는 면에서 한국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학연수과정은 또한 전공과정 입학은 위한 준비기간, 한국생활에 연착륙을 위한 과도기로서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학연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친한적인 우호세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동 기간동안, 한국 정착 및 진학 등을 위한 제반 지원을 포함한 총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은 동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정으로 정보통신 기술, 정보통신 경영 등 관련 분야에 대해 본인의 희망 전공분야를 선택, 국내 우수대학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게 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총괄적인 지원보다는 지도교수 및 연구 동료들과의 관계 등 개별적인 학교생활에 따라 생활하게 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고충 및 애로의 해결에 지원을 집중한다.

3) 인적교류협력

인적교류협력은 국내연수과정 중에 워크숍, 간담회, 산업시찰 및 한국문화 체험 등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계 및 정부인사 등과의 유대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통신 산업의 홍보를 통해 관련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과, 사업 종료 및 귀국 후, 인적네트워크의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기반을 강화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제 2 장 사업의 추진방법

제 1 절 추진방법

1. 기본계획 수립

가. 사업 기본방향 수립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사업은 1998년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의 수행에 따른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점검하고 이를 차기 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석사학위를 이수할 수 있는 자격 및 역량이 있는 연수생을 선정, 초청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연수생들이 국내 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셋째, 희망학교에 진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학사정 관련 지원을 하고 넷째, 학업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제없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진행과 함께 수시로 개별 참가자 혹은 참가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통해 학업 및 생활상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업 및 생활에 대한 지원 외에도 워크샵, 산업시찰 등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IT산업 홍보 및 학업효과 제고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 전담기관, 사업관리기관, 교육기관 등 간의 사업수행에 따른 역할분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전체 사업의 진행을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업무를 맡는 동시에 해당국 정부와의 협의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조정 업무도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국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의 유력 인사를 선정하고 이들의 초청 및 입국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담기관은 전체 프로그램의 계획, 일정안 마련 및 과정진행 관리 등을 담당하여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개별 연수생과의 연락부터 한국 체재시 관리까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어학연수 기관 및 전공교육기관은 참가자들의 교육효과 제고 및 국내 생활적응을 위해 참가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며, 동시에 사업 전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참가자들의 국내 생활 및 학업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 사업을 포함한 기타 인력사업의 사후관리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라는 맥락에서 기타 인력사업과 연계하여 인력사업 DB구축 및 관리, 커뮤니티 구성 등으로 각 과정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의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한다.

나. 2003-2004년도 사업규모 확정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 등과 전년도 예산규모 및 사업결과, 당해연도 사업 계획 등을 바탕으로 예산규모를 확정짓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003년도의 경우 기존 참가자들인 제2기 참가자들과 2003년 3월 입국한 제3기 참가자들의 어학연수과정 진행과 전공과정 진행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2003년도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제3기 참가자 초청

참가자 선정 및 초청은 대상국가 선정 및 해당국가의 교육생 선정의 2단계로 진행하였다. 초청대상국가는 국내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는데, 1차적으로 중국, 베트남, 헝가리가 선정되었으나, 이후 대상국가 확대라는 차원에서 미얀마가 추가되었다. 초청대상국가를 대상으로 참가인원 추천을 요청하여 참가자 선정을 진행하여, 참가대상을 통보하지 않은 헝가리를 제외하고 중국, 베트남, 미얀마로부터 총 5인을 추천받아 2003년 2월 선정위원회를 거쳐 신청인원 5인을 모두 선정하였다. 그러나 그 중 1명은 개인적인 사유(신병)로 불참하였다.

< 표 1 > 제3기 참가자 선정자 명단

이름	성별	국가	소속	직위
박명권 (Piao Mingquan)	남	중국	KIPA(i-Park 북경) / Marketing	Manager
안 뚜안 레 (Anh Tuan Le)	남	베트남	PTIT /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	IT Lecture
뚜아 트롱 훤 (Thua Trong Huynh)	남	베트남	PTIT / 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	IT Lecture
나잉 윈 스웨 (Naing Win Swe)	남	미얀마	MPP	Junior Engineer II

최종 선정된 제3기 참가자들 4인에게는 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공식 초청장이 발송되었으며, 입국 및 국내 장기체제를 위한 비자발급 관련 자료들이 송부되었다. 제3기 참가자 4인은 2003년 3월에 국내에 입국 시 교육생 안

내자료를 통한 사업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첨부 2> 교육생 안내자료 참조), 참가자는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시작으로 약 2년 6개월 간의 과정을 시작하였다.

3. 교육과정 진행

가. 제2기 참가자 교육과정 진행

제2기 참가자들은 2002년 국내에 입국하여 어학연수과정과 전공과정을 계속 진행해왔다. 모두 약 2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이미 국내 생활에는 큰 문제없이 지내고 있으며, 각자 학교에서 전공과정 3개 학기를 종료하였다.

전공과정 중간중간 담당 지도교수, 담당 지도교수와 참가자들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참가자들의 학업상의 문제점 및 국내 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개선토록 하여 학업효과를 제고하고, 안정된 국내 생활을 지원하도록 한다.

나. 제3기 참가자 교육과정 진행

1) 어학연수과정 진행

국내 서울시내 대학 소재 한국어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커리큘럼, 시설, 기숙사유무, 학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제1기 참가자들부터 제2기 참가자들까지 국내 입국 후 어학연수과정을 진행하였던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제3기 참가자들도 역시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에서 한국어교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약 6개월간의 한국어 교육으로는 대학원 과정을 따라가기에는 많이 부족하여 본인이 희망하면 전공 과정 제1학기 동안 전공과정과 함께 한국어 어학연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효과 제고 및 국내생활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진행하는 한국어 어학연수과정은 전공과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어학연수 기관은 각 학교별 거리 및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진학 학교 내에 설치된 어학연수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학교내에 설치된 어학연수기관이 없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미흡한 경우에는 근처 타 어학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이번 제3기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각 진학학교 내에 어학연수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각자 학교내에서 추가 어학연수과정을 진행하도록 지원하였다.

2) 전공과정 지원

기본적으로 참가자들 개인별로 각자의 희망전공, 대학, 교수 등을 선정, 모집기간동안 자유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 시 필요한 대학들의 입학요강, 관련 자료 등은 KISDI에서 수집,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참가자들의 합격 여부가 불투명한 관계로 모집시기, 등록기간, 합격자 발표시기 등이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대학에 복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자들의 전공과정 진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동 사업 참가자들의 전공과정 진학은 외국인 정원 외 입학으로 진학하게 되어 담당 지도교수의 의견이 합격여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관계로, 사전에 담당교수와의 면담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취지 등을 소개하여 입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3) 전공과정 진행

모든 전공과정은 한국어로 진행됨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이거나, 약 반년간의 한국어 교육으로는 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1학기에는 전공과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한국어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여 한국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사전에 담당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이들에 대한 걱정 수준의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 참가자들의 학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과정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담당 지도교수와 참가자들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참가자들의 학업상의 문제점 및 국내 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개선토록 하여 학업효과를 제고하고, 안정된 국내 생활을 지원하도록 한다.

4. 참가자 관리 및 지원

가. 과정진행 중 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수시로 간담회 개최, 워크숍 개최, 산업시찰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내 정착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며, 특히 초기 국내 정착시에는 전담기관 직원이 수시로 참가자들을 방문, 숙박시설, 식사, 교통, 언어, 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지원하여 국내 정착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그리고 전공과정 진학, 향후 진로선택 등에서 국내의 상황 및 각 대학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본인 적성에 적합한 전공 및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문화체험시간을 마련하여 역사 유적지, 문화지역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생활 등을 이해하고, 국내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과정종료 후 관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해외 IT인력 단기 초청연수사업과 연계하여 인력사업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참가자들간의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 귀국 후에도 상호간에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이 모든 과정을 종료하고 귀국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Newsletter, 한국의 IT산업 현황 등의 자료를 송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현지 대사관 및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 및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의 IT산업 홍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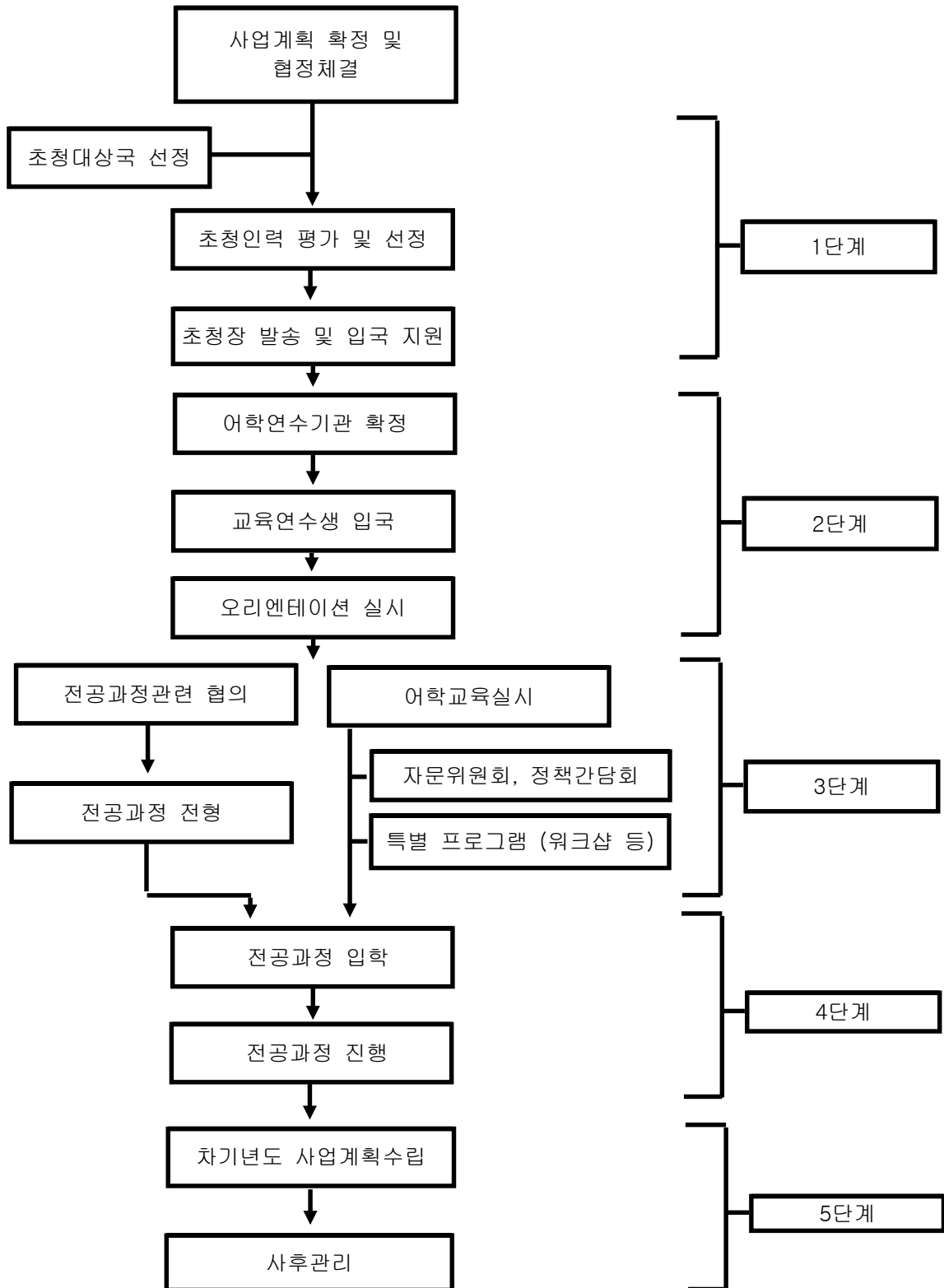
현지 대사관 등에서 진행하는 한국 IT산업 홍보관련 행사, 소속 기관과의 해당 분야 공동연구 진행 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의 IT 산업 현황, 관련 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절 사업의 추진체계

1. 업무분장

기 관 명	담 당 업 무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편성 ◦ 사업의 지도·감독 및 지원 ◦ 사업수행관련 제반지침마련 ◦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내역 확정 ◦ 사업수행 관리 및 사업수행실적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총괄적인 집행관리 ◦ 사업실행계획의 수립, 관리 및 평가 ◦ 예산집행 및 처리 ◦ 교육위탁 및 관리 ◦ 정보통신부, 교육기관 및 업체와의 업무협력
어학연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 ◦ 연수생관리 지원
전공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과정입학관련 협조 및 지원 ◦ 교육 및 학사관리

2. 사업추진 체계



제 3 장 추진 실적

제 1 절 제2기 및 제3기 과정진행

1. 제2기 과정 참가자

제2기 과정 참가자들은 2002년 국내에 입국 후 약 반년간의 어학연수과정을 거쳐 각각 경희대(4인), 서울대(2인), ICU(3인)에서 전공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3학기를 진행하였고, 2004년 8월이면 모든 과정을 종료하고 학위를 취득, 귀국할 계획이다.

< 표 2 > 제2기 참가자 전공과정 수학 현황

이름	성별	국가	소속학교	학과
양빙 (Liang Bing)	여	중국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여상 (Yu Xiang)	남	중국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남홍 (Nan Hong)	남	중국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양육백 (Yang Yubai)	남	중국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국박 (Ju Bo)	남	중국	서울대	전기공학부
대영균 (Dai Yongjun)	남	중국	서울대	전기공학부
batchuluun Burentags (Batchuluun Burentags)	남	몽골	ICU	공학부
Oidov Enkhbayar (Oidov Enkhbayar)	남	몽골	ICU	경영학부
Batdelger Gerel (Batdelger Gerel)	남	몽골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이미 국내 생활을 2년간 경험하고 있는 이들로서는 현재 국내 생활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며, 학업 진행에 있어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등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의 수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국내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학업 진행으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담당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적정 수준의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함께 전공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실 동료 한국 학생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학업 및 국내 생활 등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들 한국 학생들의 도움으로 참가자들의 학업 및 국내 생활상의 애로사항이 많이 개선될 수 있었다.

그리고 참가자들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제2기 참가자들의 경험을 제3기 참가자들에게 전달, 국내 생활 및 학업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학업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이 직접 느끼고 해결했던 많은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과정 진행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단, ICU에 재학중이던 제2기 참가자들 중 몽골 참가자는 ICU의 특수한 학사관리로 인해 ICU에서 계속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도교수의 소견서를 보내움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거쳐 경희대로 편입, 계속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2. 제3기 참가자

가. 어학연수과정 진행

제3기 참가자들은 2003년 3월에 입국 후 제1기, 제2기 참가자들이 어학연

수 과정을 진행하였던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2003년 8월까지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어학연수기관 선정 시 서울시내 한국어연수기관에 대한 커리큘럼, 기숙사유무, 학비 등에 대한 비교조사를 거쳐 가장 높은 평가를 얻고, 또한 이미 제1기, 제2기 참가자들의 한국어연수 경험을 갖고 있어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을 어학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 표 3 > 어학연수과정

이름	성별	국가	어학연수기관
박명권 (Piao Mingquan)	남	중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3. 3 - 2003. 8)
안 뚜안 레 (Anh Tuan Le)	남	베트남	
뚜아 트롱 훤 (Thua Trong Huynh)	남	베트남	
나잉 윈 스웨 (Naing Win Swe)	남	미얀마	

약 6개월간의 짧은 기간동안의 어학연수였지만, 모두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공과정을 이수하기에는 한국어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공과정 제1학기 동안 추가로 한국어 교육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을 추천하여 한국어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추가 어학연수는 소속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경희대학교(3인), 서울대학교(1인)에 진학한 참가자들은 각각 본인의 소속 학교내에서 계속 추가 어학연수를 진행하였다.

< 표 4 > 추가어학연수과정

이름	성별	국가	어학연수기관
박명권 (Piao Mingquan)	남	중국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3. 9 - 2003. 12)
안 뚜안 레 (Anh Tuan Le)	남	베트남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2003. 9 - 2003. 12)
뚜아 트롱 훤 (Thua Trong Huynh)	남	베트남	
나잉 윈 스웨 (Naing Win Swe)	남	미얀마	

나. 전공과정 지원

제3기 참가자들은 전공과정 진학을 위해 본인의 희망전공, 학교, 교수진 등에 따라 2003년 4월~6월 동안 입학전형을 실시하였다. 제1기, 제2기 참가자들의 전공과정 입학전형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정원 외 입학규정에 따라 입학전형을 치르게 되면, 담당 지도교수의 승낙 여부가 곧 합격 여부와 관계됨을 참고하여 입학전형 전에 미리 각자 희망전공, 희망 학교에 맞는 담당교수를 선택, E-MAIL, 전화, 인터뷰 등 사전에 많은 연락을 유지하며 사전 입학승낙을 받아두었다.

참가자들의 희망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게 되어 참가자들의 합격 여부가 불투명한 관계로 모집시기, 등록기간, 합격자 발표시기 등이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대학에 복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지원한 학교로는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KAIST 등으로 본인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경희대(3인), 서울대(1)로 각각 결정하였다.

동 사업 참가자들의 전공과정 진학은 외국인 정원의 입학으로 진학하게 되어 담당 지도교수의 의견이 합격여부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관계로, KISDI에서는 사전에 담당교수와의 면담 등을 주선하여 동 사업의 취지 등을 소개하여 입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관련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였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지원한 학교에 합격하였고, 이들 대학 중에서 가장 본인들의 희망 전공, 지도교수, 학교 등이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였다. 참가자들의 지원대학과 최종 진학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5 > 제3기 참가자 전공과정 진학상황

이름	성별	국가	지원학교	최종진학학교
박명권 (Piao Mingquan)	남	중국	KAIST, 서울대	서울대
안 뚜안 레 (Anh Tuan Le)	남	베트남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뚜아 트롱 흰 (Thua Trong Huynh)	남	베트남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나잉 윈 스웨 (Naing Win Swe)	남	미얀마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다. 전공과정 진행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학원에서의 전공과정은 한국어로 진행됨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이나, 약 6개월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제3기

참가자들로서는 대학원 교육을 이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전공과정 진행과 함께 한국어 교육을 병행하여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참가자들의 한국어 실력 및 한국어 교육 병행 등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담당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알리고, 이를 감안하여 전공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동시에 함께 전공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학업 및 국내 생활 등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들 한국 학생들의 도움으로 참가자들의 학업 및 국내 생활상의 애로사항이 많이 개선될 수 있었다.

3. 특별프로그램 진행

참가자들의 학업 성취정도, 국내 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해소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 전담기관 등의 전문가, 참가자들과 함께 간담회, 워크샵, 산업시찰 및 한국문화체험 등 특별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수시로 전담직원이 참가자들을 면담, 접촉하여 국내 생활 및 학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이를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프로그램은 학과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한국의 IT산업, 한국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 및 학업 효과 제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2003년도에는 여름, 겨울 특별프로그램으로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매월 간담회 개최,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시찰 등을 진행하였다.

< 표 6 > 특별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일시 / 장소	주요내용
간담회	- 2003. 6. 4 - KISDI	- KISDI IT HRD사업 소개 -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 참가자 지원 개선방안 - SARS 대처방안 논의
	- 2003. 6. 20 - KISDI	- KISDI 및 IT HRD 사업 소개 - 어학연수, 전공과정, 특별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유토론 및 건의 - 비상연락망 구축
	- 2003. 7. 25 - 경희대	- 국내생활관련 토론 - 산업시찰 및 하계 워크샵 관련 토론
산업시찰 및 한국문화체험	- 2003. 7. 26 - 민속촌	- DGF 과정과 연계한 민속촌 관람
	- 2003. 9.19-21 - 대전, 경주	- 특허청 방문 - 한국문화체험 (경주)
	- 2003. 11. 1-3 - 대전, 경주	- ETRI 방문 - 한국문화체험(경주)
워크샵	- 2003. 8. 29-30 - 대천	- 국제협력단 및 사업 소개 - 차세대 사업 하반기 일정 소개 - 단기과정 연계프로그램 일정 안내 - 국내 생활 및 학업 등 종합토론
	- 2004. 2. 26-27 - 홍천	- 2003년 학업성과 및 국내생활관련 토론 - 향후 학업계획 관련 토론 - 한국의 IT산업에 대한 이해 - 향후 사업 추진계획 안내

가. 간담회 개최

1) 제1차 간담회

가) 회의개요

- 일시 : 2003년 6월 4일
- 장소 : KISDI
- 참가자 : 담당 지도교수,
- 주요내용 : KISDI IT HRD 사업 소개, 참가자 지원 개선방안 및 SARS 대처방안 관련 논의

나) 주요내용

- 지도교수 간담회 및 학생들과의 정기모임을 통한 커뮤니티 조성
 - 정기적으로 지도교수 간담회 및 학생들과의 정기모임을 갖음으로써 참가자들의 국내생활 정착 및 학업상의 어려움 해소 등 지원
 - 현재 참가자들과 향후 참가자들 간의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동 사업 참가자들 간의 커뮤니티 구성도 지원하여 참가자들 간에 생활, 학업 등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시찰 등을 통한 현장 학습 및 워크샵 등 특별 프로그램 강화
 - 참가자들 모두 학교 내에서의 학업 외에 관련기관, 업체 등 정보통신관련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산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KISDI에서 진행중인 IT-HRD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하여 IT 관련 업체 및 기관 방문시 함께 연계하여 진행
 -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의 현장학습 및 워크샵 등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국의 IT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기관, 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향후 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사후관리 강화

- 졸업 및 귀국 후에도 정기적으로 국내 IT산업 현황, 홍보자료 등의 뉴스레터, Alumni의 발송 등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
- 재외 공관, 재외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진행하는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에 참가자들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참가자들의 명단을 재외 공관에 통보, 지속적인 연락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
- DB구축 관리를 통해 향후 국내 업체들이 동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SARS 대처방안 논의

- 최근 중국, 홍콩, 베트남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의 국내 및 국외 발병을 감시하고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여 확산을 방지
 - SARS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큰 문제로 되고 있는 바, 차세대 통신 지도자 초청교육사업 참가자 대부분이 SARS 위험국가에서 초청되었음
- 7~8월 방학기간동안 참가자들이 일시 귀국하였다가 돌아올 경우 SARS 감염, SARS로 인한 국내 입국이 불가 및 SARS의 국내 전파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가능한 귀국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예정임

○ 지도교수 의견

- 학생들 중 강의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 대처방안으로 석사과정을 2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과정 기간 연장 혹은 타학교로의

편입 등의 추가 조치 필요

- SARS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방학 중 귀국자제를 요청하겠음
 - ICU의 경우 3학기제로 여름 방학이 없기 때문에 귀국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타학교의 경우 방학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귀국할 경우 SARS에 무방비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필요
 - 공문 등을 통하여 지도교수들의 학생들의 귀국자제 권고 요청
 - SARS관련한 보험을 조사하여 대처방안 모색
 -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대처방안 정리 필요
- 본 사업 참가자들에게 KISDI에서 별도로 수료증을 제작하여 각 학교별 졸업식 외에 별도로 수료식을 하는 방안 검토
- 이러한 초청 교육사업은 사후 네트워크 관리가 매우 중요함
 - 본 사업의 목적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키워줌으로써 친한파 양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석사과정 수료 외에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친한국적 인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
 - 웹페이지를 통한 커미티 구성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
 - 명절이나 Season에 맞는 간단한 선물 준비 배포 (볼펜, 수첩 등의 소품)
 - 또한 국가별로 대사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랑데부 포인트'를 만들어 참가자들이 각국에 돌아가 자리를 잡은 후에도 랑데부 포인트를 통한 사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최초 참가자 선정시 해당학교 교수들이 선정위원회에 참가하여 보다 우수한 인력이 선정될 수 있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에 더욱 부합 될 것임
- 현재 ICU에서 공부하고 있는 몽고 학생(지도교수: 이영희)의 경우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서울대의 경우 기숙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어 학생들 숙소문제 해결 필요

2) 2차 간담회

가) 회의개요

- 일시 : 2003. 6. 20 (금)
- 장소 : KISDI
- 참가자 : 제2기 참가자 9인, 제3기 참가자 4인, KISDI 원장, APIICC 소장, DGF-KTC 소장
- 주요내용 : KISDI 및 IT HRD 사업 소개, 어학연수, 전공과정, 특별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유토론 및 건의

나) 주요내용

- 교육과정
 - 현재 제2기 참가자들은 각각 경희대, 서울대, ICU에서 현재 2학기째 진행 중
 - 경희대 : 수업 진행은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실 내의 동료들 및 교수님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무리없이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대 : 수업 진행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하고 있음
 - ICU : 학제상 1년 3학기제로 운영되며 수업 진행이 매우 강도가 높아 사실상 학업을 따라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
 - 제3기 참가자들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현재까지 약 3개월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제2기 참가자들의 경험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은 향후 전공과정 진행

및 국내 생활 등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

- 약 6개월간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부족한 것 같으며 1년 정도 기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산업시찰 및 문화체험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기연수과정과 연계하여 교육 참가 및 산업시찰, 문화체험의 기회를 함께 제공
 - 단기과정의 각 과정별 세부 일정을 참가자들에게 통보, 본인의 희망 일자에 맞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교육, 산업시찰 및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하여 산업시찰 및 문화체험만을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도교수와도 함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방학 기간동안 특별프로그램

- 하계 및 동계 특별 프로그램은 방학기간 중 계절의 특성에 맞게 외지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 정도로 갖기로 함
 - 방학 시작 전에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이 원하는 지역, 일정 등으로 프로그램을 계획
- 2003년 하계방학기간 중 관련 분야 주제를 가지고 워크샵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담당 지도교수님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번 하계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장소, 일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

○ 기타 사항

- 매월 네 번째 금요일 저녁 7시~10시 정례모임 갖기로 함
 - 한국생활 및 학업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한 장을 마련

- 개선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
- 참가자들 간의 유대 강화
- 모임 장소는 참가자들의 소속 대학이 다양한 점을 고려, 참가자들의 의견을 받아 각 학교별로 돌아가며 선정하도록 함
- 참가자 기수, 학교별 대표를 선정하여 주요 사항이 있을 시 이들을 통해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함

< 표 7 > 기수별 대표 연락처

기수	연락담당 대표	학교	국가	연락처	e-mail
2기	남홍 (Nan Hong)	경희대	중국	019-839-3190	ybnanahong@hotmail.com
	국박 (Ju Bo)	서울대	중국	016-660-0029	jubo@sina.com
	엠호바야르 (Oidov Enkhbayar)	ICU	몽골	019-843-7084	enkhbayar10@yahoo.com
3기	박명권 (Piao Mingquan)	서울대	중국	011-9138-0590	parkmq@sina.com
	안 뚜안 레 (Anh Tuan Le)	경희대	베트남	016-9219-8227	letuanh@hotmail.com

3) 3차 간담회

가) 회의개요

- 일시 : 2003. 7. 25 (금)
- 장소 : 경희대학교 (회기동)
- 참가자 : 제2기 참가자 2인, 제3기 참가자 3인
- 주요내용 : 국내 생활 및 산업시찰, 하계 워크샵 관련 토론

나) 주요내용

① 국내 생활관련 토론

- 한국 내에서의 물가가 확실히 중국, 베트남, 미얀마보다 많이 높아서 많이 놀랐음
- 특히 음식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남
- 한국요리를 직접 해먹기도 하는 등 한국 음식은 대체적으로 참가자들 입맛에 맞음
 - 한국요리 중 찌개 및 탕 등 대표적인 음식 조리법을 알고 싶어함
- 3기 참가자들도 이미 한국 생활이 4개월이 넘어서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물건을 사는 등 기본적인 생활은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음

② 8월 하계 워크샵

- e-mail을 통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계 특별프로그램 일정을 결정, 실시할 예정임
 -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의 귀국, 수업, 세미나 등의 사유로 참가자들 대부분이 8월29~30일의 기간을 선호
 - ▶ 일 시 : 8월 29(금) -30일(토)
 - ▶ 장 소 : 대천해수욕장(서해안) 한화콘도
- 자세한 사항은 추후 e-mail로 다시 통보할 예정이며, 가족 및 지도교수 등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③ 하반기 Study-Visit 일정

-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들 과정에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및 산업시찰 등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내의 수업 외에 직

접 한국의 IT산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표 8 > 하반기 해외 IT인력 초청연수 주요과정일정

과정명	일정	비고
정보보호 과정	8.26 - 9.4	APT Study Visit
전자정부 과정	9.16 - 9.25	APT Study Visit
전파관리 과정	10.7 - 10.16	APT Study Visit
정보통신개발 과정	11.18 - 11.27	APT Study Visit

나. 워크샵 개최

1) 하계 워크샵 개최

가) 회의개요

- 일시 : 2003. 8. 29(금) ~ 30 (토)
- 장소 : 대천 한화콘도
- 참가자 : 제2기 참가자 7인, 제3기 참가자 3인
- 주요내용 : 참가자들의 국내 생활 및 향후 학업계획에 관한 발표 및 토론, 국제연구협력단 하반기 업무계획 소개

나) 주요내용

① 한국 생활 및 전공관련 토의

- 참가자 주요 발표내용
 - Thua Trong Huynh
 -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생소했으나 경희대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 점점 익숙해지면서 많이 좋아졌음
 - 한국의 음식은 다 좋은데, 매우 매운 것이 특징이고 중국, 미얀마,

몽골 친구들을 사귀게 되서 매우 기쁘고 중국, 몽골 친구들을 보면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할 것 같음

- 이후 베트남에 돌아간 이후에도 많은 부분을 활용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살려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음
- 한국 사람들은 아주 좋음. 특히 식당에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우 친절하고 한국 음식도 매우 맛있어서 좋음
- 교내시설도 훌륭하며 학교생활에 재미가 있음

- Nan Hong

- 한국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한 것 같고 술도 잘 먹는 것 같음
- 선배님에 대한 존중이 매우 강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중국과는 매우 다름

- Liang Bing

- 언어 문제 등이 있으나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음

- Yang Yubai

- 한국에 온지 1년 반 동안 한국 문화와 한국어, 전공 등을 배우게 되어 매우 좋았음
- 한국에 오기 전에 이동전화 회사에 있어서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의 개발에 대해 알고 싶음
- 이후 중국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 한중간에 정보통신에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람

- Batdelgel Gerel

-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8개월 배우고, 현재는 ICU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ICU에서는 수업을 영어로만 진행되고 한국어를 많이 쓰지 않아서 더욱더 많은 공부해야 할 것임

- Battchuluun Burentags

- 처음엔 한국에서 언어문제 및 식사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음
- 한국어가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어순이 비슷해서 배우기 쉬워졌음
- 전공에 관심이 많았으며, 배울 것이 많고, 앞으로 회사(몽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매우 기쁨

- Naing Win Swe

-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어와 한국의 IT(3G, CDMA 등)을 배우게 되어 매우 기쁨
- 한국어를 약 6개월간 배웠지만 잘 하지는 못하고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음
- 한국의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한 경험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② 향후 계획

- 매월 참가자 간담회 개최

- 참가자들간의 단합과 정보공유, 국내 생활 및 학업상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참가자들간의 간담회를 개최

- 수시로 지도교수님들과의 연락을 통한 참가자들의 생활 및 학업 등의 문제점 해결 지원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워크샵, 산업시찰 등을 준비하여 학업 뿐 아니라 관련 산업현황 및 정보 제공을 지원

- 단기 IT인력 연수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과정의 교육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2) 동계 워크숍 개최

가) 회의개요

- 일시 : 2004. 2. 26(목) ~ 27 (금)
- 장소 : 홍천 대명콘도
- 참가자 : 제2기 참가자 6인
- 주요내용 : 2003년도 참가자들의 학업성과 및 국내 생활, 향후 학업계획에 관한 발표 및 토론, 한국 IT산업에 대한 소개, 향후 사업계획에 관한 안내

나) 주요내용

- ① 2003년 학업 성과 및 한국 생활
 - 지금까지 총 3학기를 진행하면서 어려운점도 많았지만, 교수님과 대학원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어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공부할 수 있었음
 - 지난 1년간은 특히 교수님께서 많은 과제와 발표, 논문 등 전공과정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하셔서 다른 것에 신경쓸 틈도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음
 - 그렇지만 학회지에 본인 이름으로 된 논문을 발표하고 원고를 기고하는 등 어려웠던 만큼 많은 보람도 있었음
 - 처음 한국에 도착한 후 지금까지 총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은 지금 제2의 고향과 같은 느낌임
 - 제2기 참가자 양육백, 국박의 경우 부인들이 한국에 함께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감소되었음

-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인들도 한국생활에 많이 적응되어 식사도 한국식으로 만들어 먹는 등 한국에서의 생활은 문제가 없음
- 다만 참가자들과는 달리 부인들은 한국어에 대한 정규수업을 받은 적이 없어서 한국어 구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참가자는 총 4인임
 : 양육백, 국박, 엠호바야르, 밋추룬

② 향후 학업계획

- 현재 3개 학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전체 전공과정의 마무리에 노력을 기울여서 석사학위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임
- 지도교수님과 함께 논문작업을 준비하며 함께 관련 학회지 등에 지속적으로 페이지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학위 취득 후 귀국하면 모두 자신의 원래 소속 부서로 복귀하게 될 것인데 모두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앞으로도 계속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자기 계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③ 한국의 IT산업에 대한 이해

- 한국의 IT산업에 대한 소개자료와 통계자료 등에 대한 배포와 이에 대한 참가자들과의 토론
- 90년대 들어 짧은 시간에 집중 투자를 통해 급속한 발전을 보인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정책과 발전에 대해 상당히 놀라움

-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국에서도 현재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④ 향후 추진계획

- 2004년도에는 제2기 참가자들이 과정을 종료하고 귀국하게 되는 해이고, 과정의 마지막 학기로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
 - 남은 한 학기동안 한국의 IT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산업시찰과 국내 관련 업체, 기관 등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진행할 것임
 - 향후 과정 종료 후 참가자들간의 연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게시판을 활용한 커뮤니티 조성, 상호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
- 귀국 후 기존의 부처로 복귀, 계속 담당하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공동연구과제 진행, 사업연계 등을 통해 최대한 동 사업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경희대로 편입학하여 전공과정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몽골 참가자 바트렐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2005년 2월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산업시찰 및 한국문화체험

KISDI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과 연계하여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 참가자들도 동 연수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시찰, 한국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였다.

1) 제1차 과정 : Regulation and Reform in Telecommunications 과정
(DGF 개도국 정보격차해소사업)

가) 개요

- 일시 : 2003. 7. 26(토)
- 장소 : 한국 민속촌
- 참가자 : 제2기 참가자 3인
- 주요내용 : 한국의 전통 문화와 민속에 대한 소개

나) 내용정리

- 차세대 통신지도자 참가자 및 한국 거주 가족들이 민속촌 방문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는 기회 제공
- 민속촌에서 주로 돌아본 곳
 - 남부지방가옥, 남부지방대가, 중부지방가옥, 관아, 농악, 양반가, 북부지방가옥, 장터, 제주민가, 민속관, 대장간 등
- 민속관의 전시물 내용은 조선시대 후기의 어느 한해를 중심으로 4대의 가족구성원들의 연중생활 모습을 세시풍속과 민간신앙, 연희 오락, 관혼상제를 통해 우리의 전통생활문화 전반을 소개
 - 가이드 이어폰을 통하여 한국문화 및 각 시설에 대한 설명 제공

2) 제2차 과정 : APT 전자정부과정 (해외 IT인력 단기초청연수사업)

가) 개요

- 일시 : 2003. 9. 19(금) ~ 9. 21(일)

- 장소 : 대전 특허청(KIPO), 경주
- 참가자 : 제2기 참가자 5인
- 주요내용 : 한국의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한 우리나라 IT산업의 현황 소개 및 우리나라 역사 유적지 방문 등 문화체험기회 제공

나) 내용정리

- KIPO(특허청) 방문
 - KIPO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허관련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현황 소개와 투어
 - KIPO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KIPO NET에 관한 배경 및 운영현황 소개
 - 국제 주요 IT 이슈와 관련된 전자 지불, 전자 특허넷 구축 및 각 국가별 협력현황 소개
 - IT기술 발전에 따른 차세대KIPO NET의 발전 및 개발내용 소개
 - KIPO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 센터와 콜 센터 운영현장 방문
- 경주지역 문화체험
 - 석굴암
 - 석굴암은 통일신라의 문화와 과학의 힘, 종교적 열정의 결정체이며 보석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문화재
 - 석굴암의 소개와 과학적인 구조에 관한 설명
 - 불국사
 - 한국의 뛰어난 불교예술작품들이 자리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 대웅전의 소개와 기념촬영
 - 석가탑의 전설과 다보탑의 건축구조에 관한 설명
 - 관음전과 관세음보살 소개
 - 천마총 방문

- 경주 황남동 고분군 일대를 정비, 정화하여 대릉원(大陵苑)이라 이름지은 고분공원 안 서북쪽에 위치하며, 원래 경주155호 분이라고 불려 왔던 밑지름 47m, 높이 12.7m의 원형분(圓形墳)임
- 천마(天馬)를 그린 장니(障泥:말다래)와 금관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음

3) 제3차 과정 : CDMA 과정 (해외 IT인력 단기초청연수사업)

가) 개요

- 일시 : 2003. 11. 1(토) ~ 11. 3(월)
- 장소 : ETRI, 경주
- 참가자 : 제2기 참가자 5인
- 주요내용 : 한국의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 방문을 통한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사 및 R&D 현황 소개 및 우리나라 역사 유적지 방문 등 문화체험기회 제공

나) 내용정리

- ETRI 방문
 - ETRI의 발전 역사와 ETRI에서 진행해왔던 전자통신 분야의 개발 현황과 향후 방향 소개
 - CDMA, 음성인식번역기술, 데이터방송, 위성방송, 초고속통신 등 다양한 국내 IT기술의 개발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직접 시연함으로써 국내 IT산업의 우수성 홍보
- CDMA 교육
 - 우리나라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IT산업의 발전사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IT산업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동시에

국내 IT산업 발전현황을 소개

- CDMA기술 개론과 발전사, 국내에서의 CDMA R&D 역사, 향후 CDMA기술의 발전 방향 등을 소개
 - 이를 활용한 무선인터넷 및 무선통신 서비스 등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의 우수성을 홍보
- 4세대 이동통신 기술 발전을 통해 향후 CDMA를 비롯한 무선이동통신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동시에 현재 국내에서 진행중인 개발현황을 홍보
-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더욱 많은 무선이동통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고, 앞선 국내 무선이동통신기술을 홍보할 수 있었음

○ 경주지역 문화체험

- 석굴암
 - 석굴암은 통일신라의 문화와 과학의 힘, 종교적 열정의 결정체이며 보석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문화재
 - 석굴암의 소개와 과학적인 구조에 관한 설명
- 불국사
 - 한국의 뛰어난 불교예술작품들이 자리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 대웅전의 소개와 기념촬영
 - 석가탑의 전설과 다보탑의 건축구조에 관한 설명
 - 관음전과 관세음보살 소개
- 천마총 방문
 - 경주 황남동 고분군 일대를 정비, 정화하여 대릉원(大陵苑)이라 이름지은 고분공원 안 서북쪽에 위치하며, 원래 경주155호 분이라고 불려 왔던 밑지름 47m, 높이 12.7m의 원형분(圓形墳)임
 - 천마(天馬)를 그린 장니(障泥:말다래)와 금관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음

4.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기관의 역할,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참가자들의 교육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관부서인 MIC, 전담기관인 KISDI와 각 교육기관의 담당 지도교수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2003년 9월 제1차 자문위원회를 통해 동 사업 운영전반에 대해 운영방안을 규정짓는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9 > 자문위원회 명단

이름	소속	직위
김 중 섭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서 보 현	KISDI	APII협력센터 소장
이 영 희	ICU	교수
이 현 정	MIC	사무관
정 인 억	KISDI	국제연구협력단장
최 종 호	서울대학교	교수
홍 충 선	경희대학교	교수

가.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1) 회의개요

- 일시 : 2003. 9. 25(목)
- 장소 : 서울플라자호텔
- 참가자 : 김중섭, 홍충선(이상 경희대), 이영희(ICU), 최종호(서울대), 이현정(MIC), 정인억, 서보현, 이석우(이상 KISDI)

- 주요내용 :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 운영지침 심의, 확정 및 교육생 지원, 지도현황 종합검토

2) 주요내용

-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회 위원은 주관부서인 MIC, 전담기관인 KISDI와 각 교육기관의 담당 지도교수들로 구성하여 운영

가) 운영지침

-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 운영지침 심의 및 확정
- 내용 (<첨부 1>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 운영지침 참조)
 -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등
 - 선정 심사 및 결과 통지
 - 학사관리 의무
 - 초청장학생 의무
 - 제재조치

나) 자문위원회 의견

-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추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이렇게 운영지침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임
 - 국제교육진흥원 등의 유사사업 운영지침 등을 보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다루고 있으며, 일부 부분은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음
- 이번 운영지침으로 어학연수기관, 대학원 등 교육기관 외에 지도교수님들을 동급으로 하여 지도교수님의 권한을 높이 인정하였음
- 운영지침의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항별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례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문위원들을 참석시키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자체가 힘들 것으로 e-mail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주무부서 및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자문위원 모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 동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선발과정에서 신청자들의 여러 면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좋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면 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것임
- 학생들에 대한 공부 뿐 아니라 외국학생들의 향후 활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이를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운영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다) 제2기 참가자 지원 및 지도현황 검토

- 제2기 참가자중 1인이 재학중인 학교의 특수한 학사관리로 학업을 계속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도교수의 평가소견서를 보내움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참가자 인적사항
 - 이름 : Batdelger Gerel (몽골)
 - 소속 : ICU 공학부 (이영희 지도교수)
 - 사유 :
 - ICU의 학칙상 2회 이상 학사경고(학점 B0 미만)를 받을 경우 제적

- ICU의 경우 일반 대학과 달리 높은 학점을 요구하고 기술분야전공자도 경영학 분야의 학점취득을 요구하고 있음. 상기학생은 기술분야는 학점이 비교적 양호하나 경영학 분야 성취도가 미흡함으로 기술분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학을 추진

○ 개선방안 내용

- 해당 참가자를 약 6개월간 휴학토록 하여 2003년도 2학기 기간동안 편입 또는 전학을 추진하여 전공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이 기간동안에는 생활비 외의 기타 항목의 장학금은 지급을 중단

○ 자문위원회 의견

-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며 외국 학생이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할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춘 학생이 선발된다면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임
- 동 사업이 일반 외국 장학생 지원프로그램과는 달리 정부간 협의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외교적인 미묘한 점까지 감안한다면 동 학생의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동 학생은 공학전공으로 되어있으나 ICU의 특수한 학사관리로 경영학 수업을 함께 들어야만 하게되어 영어로 된 전공서적을 읽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했고, 상대적으로 공학관련 수업에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아 공학전공 학점도 그다지 좋게 받지를 못하였음
- 만일 공학수업만 가능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면 그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제1기 학생부터 현재 제3기 학생까지 가장 많은 학생을 담당하였던 경희대학교(홍충선 교수)에서 이번 학생을 맡아서 지도하도록 하여 동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함

- 학사일정 상 2003년 10~11월 중 편입학 전형이 있을 예정으로 그 시기를 이용하여 경희대학교로의 편입학을 추진
- 동 학생의 경희대학교로의 편입학은 금번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운영기관에서는 10~11월 중의 편입학 학사 일정을 감안, 편입학을 추진
- 이번 제2기 학생 중 몽골학생의 경우는 ICU의 특수한 학사관리 및 참가학생의 어학 부족 등이 종합되어 발생한 경우로 최초 한국어 교육을 담당했던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는 일종의 A/S 차원에서 동 학생에 대한 어학연수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임

제 4 장 사업 평가 및 효과

제 1 절 사업 평가

1. 총괄

2003년도 동 사업은 2002년 입국하여 이제 2년째에 접어든 제2기 참가자들과 2003년 3월 새로 입국하여 과정을 시작한 제3기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제2기 참가자는 전공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기였고, 제3기 참가자는 기존 제1기, 제2기 참가자들이 그랬듯이 어학연수과정을 마치고 전공과정 진학 및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전공과정의 제2학기, 제3학기로 본격적인 전공과정을 진행한 제2기 참가자들은 이미 지난 1년간의 한국어연수 및 국내 생활을 통해 한국생활에 많이 적응하였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졌다. 참가자들 모두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학업성과도 좋게 나타나 참가자들 대부분의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학업성적 뿐 아니라 국내 관련 학회 등에서의 활동도 활발하여 이미 국내 학회지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일부 참가자의 경우 해외 학회지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할 정도로 높은 학업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ICU에 진학한 제2기 몽골 참가자 Mr. Batdelger Gerel의 경우 이공계 학생들도 경영학 수업을 들어야 하는 등 ICU의 특수한 학사관리로 인해 학업 성적이 좋게 나오질 않아 과정 중간에 타 학교로 편입하여 전공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비록 학교측의 독특한 학사관리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는 하나 중간에 1학기 휴학 후 타 학교로 편입하게 되는 상황은 동 사업이 진행된 이후 처음 있는 사건으로, 앞으로도 유사사건 발생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러한 일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003년 3월에 입국한 제3기 참가자들은 약 6개월간의 어학연수과정을 진행하고 2003년 9월부터 전공과정을 시작하였다. 제3기 참가자들은 3월말에 국내에 입국하여 어학연수 및 대학원 지원 등에 있어 기존의 다른 참가자들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제2기 참가자들의 조언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한국어교육과정, 전공과정 지원 및 진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어학연수기간동안 2기 참가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한국 생활의 경험, 한국어 학습 및 대학원 선택 등에 있어 2기 참가자들의 경험을 알려주며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공과정 지원은 기존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각 대학별로 외국인 정원의 입학 특별전형에 해당되어 우선 담당 지도교수님들과의 연락을 통해 입학여부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국내 대학 및 학과 등에 대한 정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참가자 개인의 희망, 향후 진로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과를 선택, 담당 지도교수님들과 전화, e-mail 및 방문 등을 통해 연락하도록 하여 담당 지도교수님의 입학승낙을 받아 최종 입학을 결정하였다.

기존 참가자들의 경험을 보더라도 전공과정 진학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언어문제로 특히 이번 제3기 참가자들은 어학연수기간이 다른 참가자들보다 짧은 문제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전공과정 진행과 동시에 한국어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각 담당 지도교수님들과도 사전에 협의를 하였다.

짧은 기간동안 한국어연수와 전공과정 진학을 진행하다보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전담직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였다. 한국어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전공과정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자료 준비, 국내 생활 정착 등을 위한 조언 등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했다. 동시에 어학연수기관의 학업 및 교내생활 등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담직원의 노력과 어학연수기관의 지원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어학연수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한 지원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참가자들과 전담직원, 어학연수기관 담당직원들과의 인간적 유대의 강화로 국내 생활에서 빠른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다.

2. 세부평가 및 개선사항

가. 어학연수

제3기 참가자들의 어학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설, 기숙사유무, 학비 등에 대해 비교, 평가한 결과 제1기, 제2기 참가자들이 어학연수를 진행하였던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이 높은 평가를 얻어 어학연수기관으로 결정되었다.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이미 2차례의 한국어연수과정 진행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과정에 대한 열의도 높은 편이어서 참가자들의 어학연수과정 진행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제3기 참가자들은 입국시기가 3월말로 어학연수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한국어 습득 및 전공과정 진학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기존 참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의 조교 1인이 기숙사에 상주하며 참가자들의 국내생활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한 조언을 해주어 국내생활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6개월간에 걸친 한국어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은 익힐 수 있었으나,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로, 대학원 진학 후에도 전공과정과 병행하여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전공과정

제3기 참가자들이 입국 후 한국어과정을 시작하면서 국내 대학원에 대한 진학준비를 함께 시작하였다. 국내 대학원들의 신입생모집기간이 4월~6월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미처 한국어 교육 및 국내 생활 적응이 되기도 전에 전공과정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에 많은 부담이 있었다. 참가자들의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기관의 전담직원은 국내 대학원 진학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조언을 하였고, 어학연수기관의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국어교육과 함께 대학원진학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공과정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효과적인 전공과정 진행과 국내정착 등을 위해 전담기관과 담당 지도교수, 참가자들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에서는 수시로 담당 지도교수, 참가자들간의 간담회 개최 등 수시 접촉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해갈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도에는 제2기, 제3기 참가자들 모두 전공과정을 진행하고있는 중으로 학업 진행 및 국내생활 등에 대한 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이들의 과정 종료 후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교육기관에서는 동문으로서, 전담기관에서는 사업 사후관리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 특별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학업 및 국내 생활에서의 애로사항 지원, 한국에 대한 이해제고, 상호간의 유대관계 강화 등을 위해 2003년도에는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우선 참가자들과의 월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

고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관련 업체, 기관 등에 대한 산업시찰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문화체험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2003년에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동 과정은 참가자들이 많은 호응을 보였다. 향후에는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이해제고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참가자, 전담기관과의 심도깊은 대화를 통해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는 교육기관, 관련 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학업 및 국내 산업에 대한 이해 제고,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라. 국내생활

참가자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내의 기숙사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족을 대동하여 지내는 일부 참가자의 경우 학교 외부에 거처를 따로 마련하여 지내고 있다. 참가자들의 주거비용은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기숙사시설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부담이 적으나 외부에 따로 거처를 마련한 참가자들은 주거비용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전담기관에서 제공하고있는 생활비에 대한 증액은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기관 측과의 협조로 학교 주변의 저렴한 거처를 알아보고 소개해줄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제1기 참가자부터 제3기 참가자까지 전담기관에서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주고 있으며, 질병, 상해 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는 식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화재, 교통사

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질병이나 사고 등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언제나 안전과 건강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만일에 대비한 보장책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3년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SARS의 여파로 참가자들에게 방학기간동안 귀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수시로 건강에 대한 자가진단 및 검진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 2 절 사업 효과

1. 국제적 위상 제고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선진국으로서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많은 개도국에서 희망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인력개발에 대한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개도국의 인력개발을 통한 정보화 개발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정보통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강화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 강화 및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로 부각되고 있고,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이사국 선임, 부의장 선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되며, 이를 통한 동북아 IT허브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동 사업에서 배출된 개도국 차세대 통신지도자들과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정보통신인력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고 세계무대에서의 우리나라 입지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2. 국내 IT산업 홍보 및 기술의 확산

동 사업의 참가자들은 모두 자국 내에서 향후 오피니언 리더그룹 및 정책 결정자가 될 인사들로 이들을 통한 우리나라의 IT산업 홍보 및 기술의 확산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참가자들 모두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직접 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관련 학업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인사들로 향후 이들에 의한 후학 양성 및 해당국과 우리나라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술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주도로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하거나, 양국 대학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확대해간다면 이러한 확산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실체를 알리고 홍보를 통해 이들 오피니언 리더에 의한 현지에서의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홍보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이는 향후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기술력의 인정, 현지화의 필요 등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며 해외시장 진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3.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업체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있고 개도국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정보통신인력개발사업이다. 개도국의 입장에

서는 이러한 인력개발을 통해 자국의 정보통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력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된 인력사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이미 1998년부터 주요 전략국가의 고위관리자, APT 회원국 정보통신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기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초청된 인사들과 국내 업체들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직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단기 초청연수사업에 비해 동 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비록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효과는 무엇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참가자들 모두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 정책결정자 등 차세대 통신지도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로 향후 이들이 요직에 있거나 자국의 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 가게 될 때를 생각해보면 그 효과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향후 추진계획

제 6차년도에 접어드는 2004년도에는 제2기 참가자들이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과정 진행 지원과 과정종료 후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대안마련이 중요한 때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3학기동안의 전공과정을 진행한 제2기 참가자들은 국내 체류기간도 2년이 넘어서고 전공과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만큼 안정적인 학업의 정리와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교육기관 및 담당 지도교수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도교수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참가자, 지도교수가 함께하는 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해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여러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 학기에 접어든 만큼 산업시찰, 관련 업계와 연계할 수 있는 워크샵 등 특별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국내 IT산업의 홍보와 함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제2기 참가자들 중 몽골 참가자 1인 (Mr. Batdergel Gerel)은 2004년 1학기부터 경희대학교로 편입하여 전공과정을 진행하게 되어 다른 제2기 참가자들보다 1학기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수시로 전담직원의 접촉,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없이 전공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3기 참가자들은 이제 전공과정 1학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전공 심화과정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이에 이들에 대한 지원도 국내 정착 및 학업에의 적응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지원방안에서 점차 학업의 심화, 국내 산업의 홍보 및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등으로 초점을 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공 심화학습을 위해서는 담당 지도교수와 의 밀접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지도교수와 참가자들간의 간담회 등을 통한 수시 접촉과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국내 IT산업에의 이해 제고를 위해 다양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과 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정한 한국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9년 계획되어 제1기 참가자 6인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된 동 사업은 제3기 참가자들이 2005년 8월까지 전공과정을 종료하는 것으로 약 7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에 참가자들의 과정 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2002년 최종 과정 종료 후 귀국한 제1기 참가자를 비롯하여 2004년 8월에 과정을 종료하게 되는 제2기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제3기 참가자의 과정 종료 후 지원방안 및 향후 지속적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기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의 인력 DB에 동 사업의 참가자들의 DB를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함께 진행하며 Alumni 송부, 각종 자료 및 소식 송부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며 동시에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이해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인력사업 참가자들을 위한 게시판 마련하여 이를 통한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 귀국 후에도 상호간의 지속적인 연락 유지와 상호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동 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향후 한국통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여 지원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이들만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첨부 1>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 운영지침

<첨부 2> 교육생 안내자료

<첨부 3> 참가자 명단 (제1기 ~ 제3기)

<첨부 4> 주요 활동관련 사진

1. 본 결과보고서는 정보통신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사업 결과입니다.
2. 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사업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